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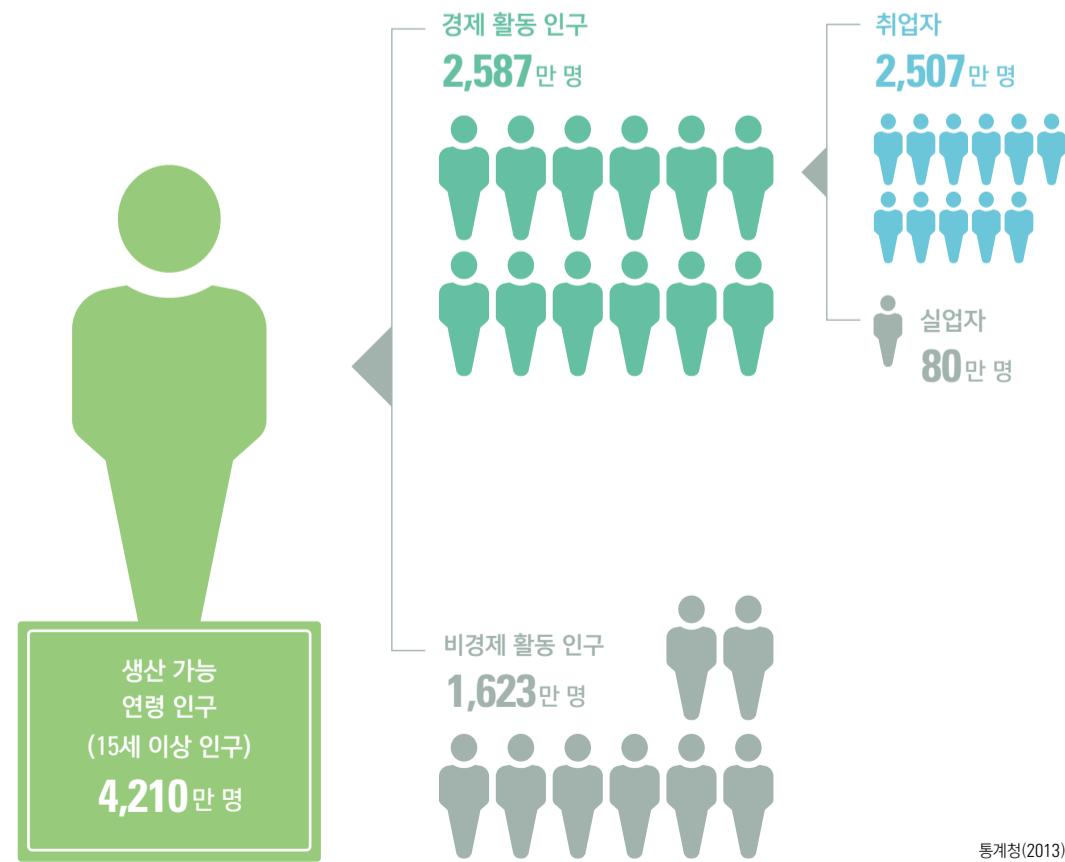
# 고용과 노동

노동은 자연 혹은 기존 노동의 산물인 원자재에 일정한 작용을 하거나 변형을 가하여 생존과 생활에 효용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화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노동을 투입하는 과정이 바로 고용이다. 이를 분석하면 인력 자원과 그 활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고용 시장의 성장과 침체는 가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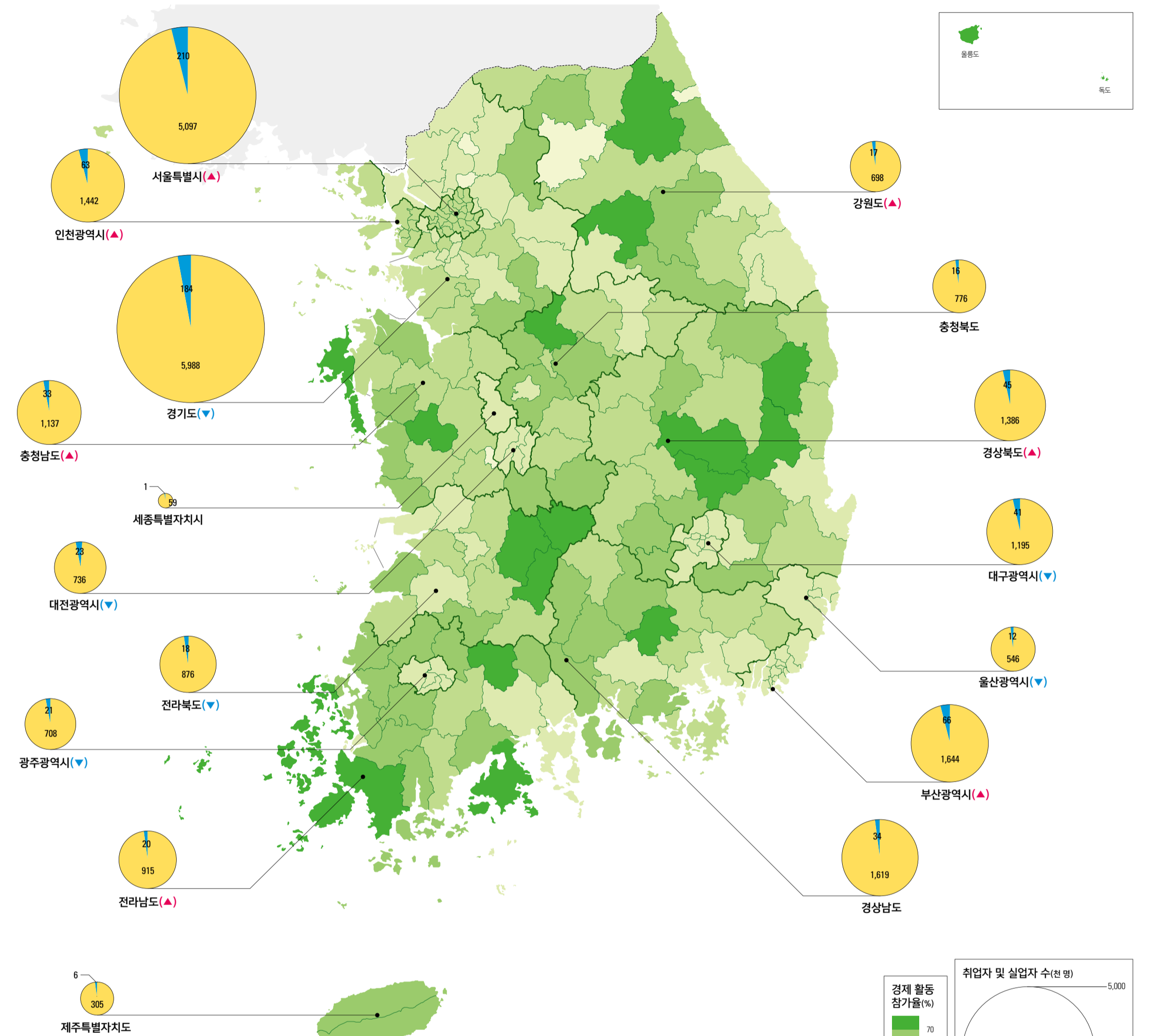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는 산업화, 서비스 경제화, 세계화, 지식 정보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산업 구조는 1차 산업 중심의 후진국형이었으나 그 이후 정부 주도 산업화 정책이 힘입어 제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하지만 1990년을 정점으로 제조업은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서비스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서비스 경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노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육체적 노동보다는 정신적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취업자 중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제조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얻게 되었다. 서비스업 일자리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혔으며, 특히 여성이 고학력화하면서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통신 기술 발전으로 정보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지식과 융합하여 신성장 동력을 얻으려는 노력은 근로자의 고학력화를 가속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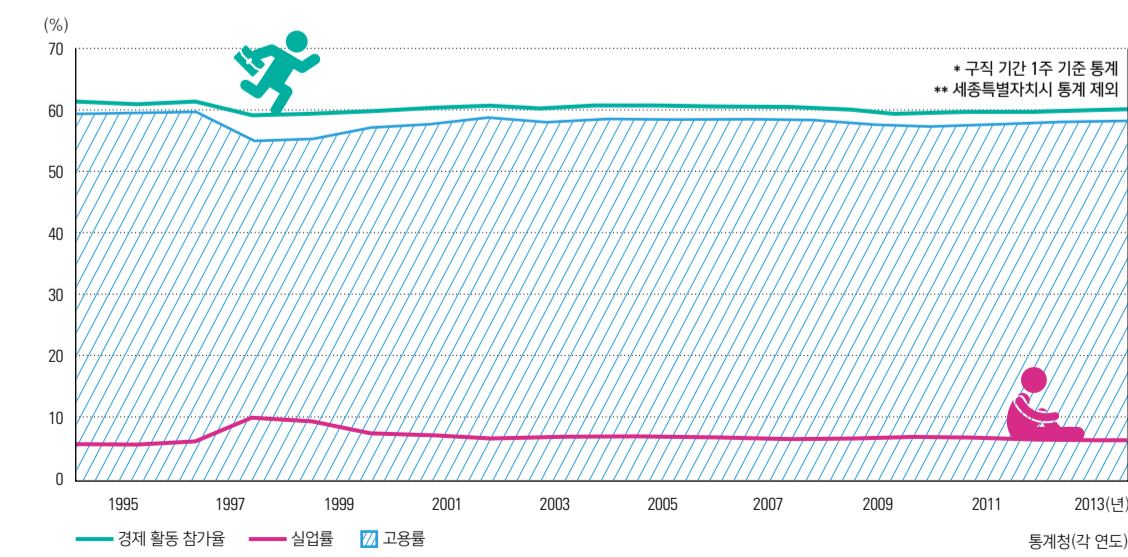
1983년에 함께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고 현재까지 저출산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근로자가 노령화하고 있다. 한편 청년 실업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 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고용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에 정부는 청년 및 노년 구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취업 고용과 실업(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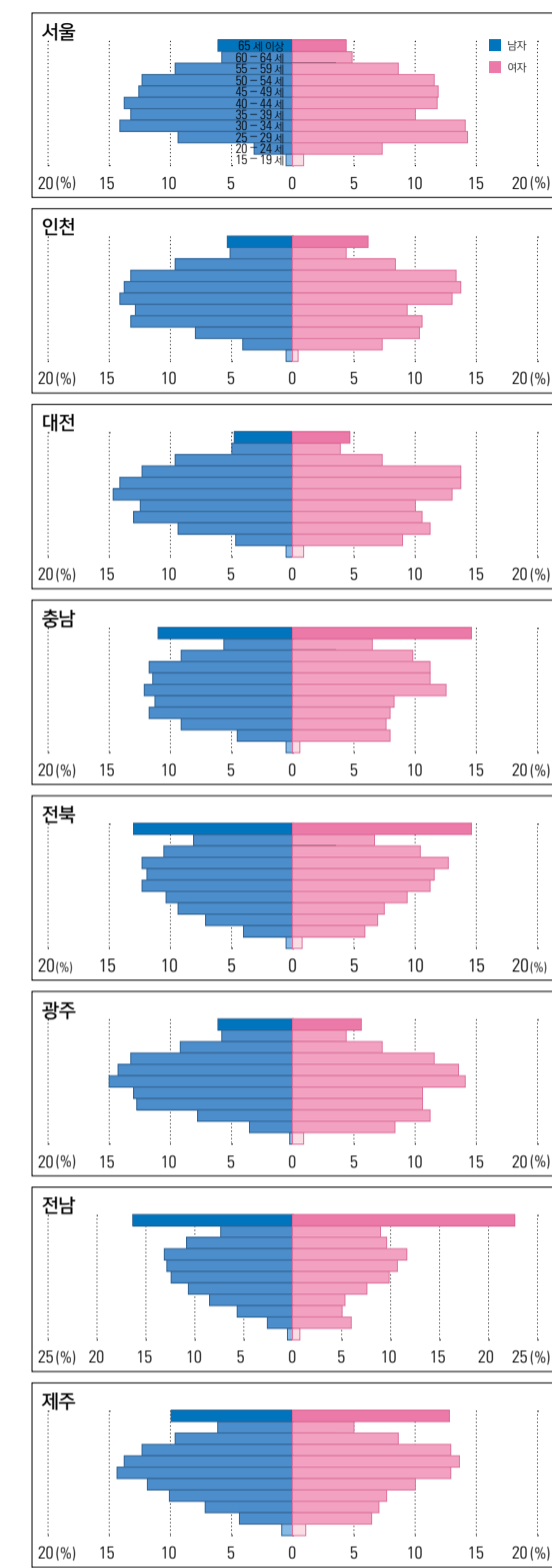
## 전국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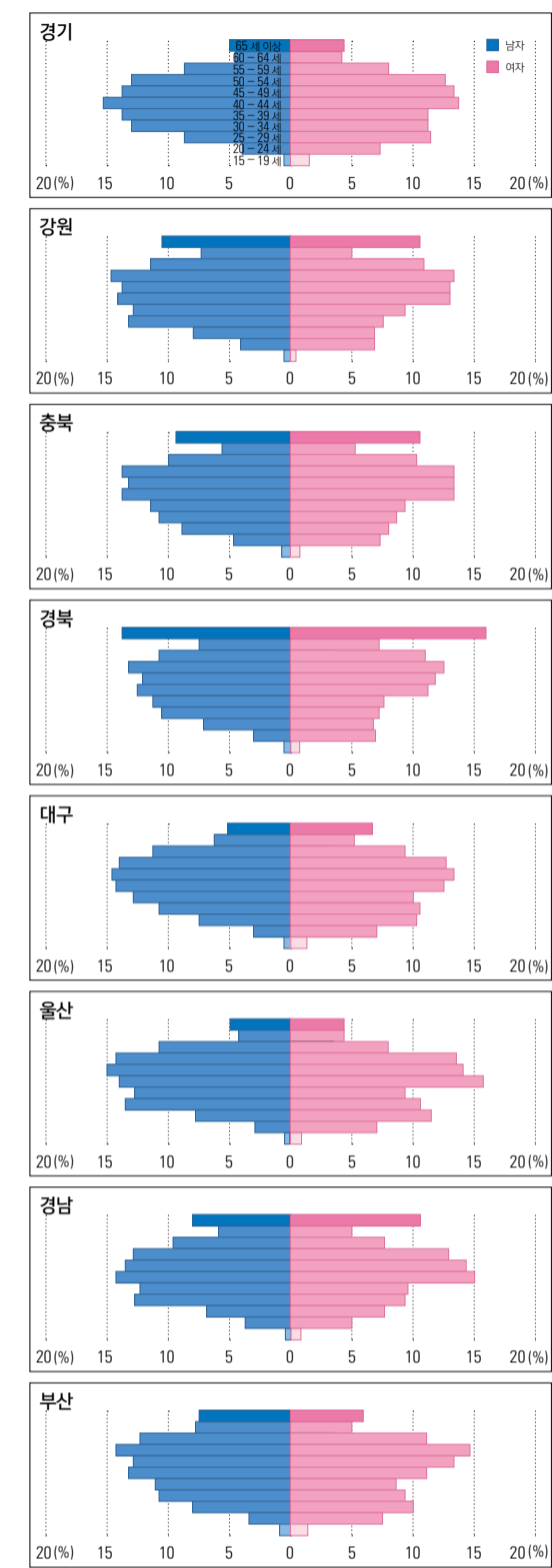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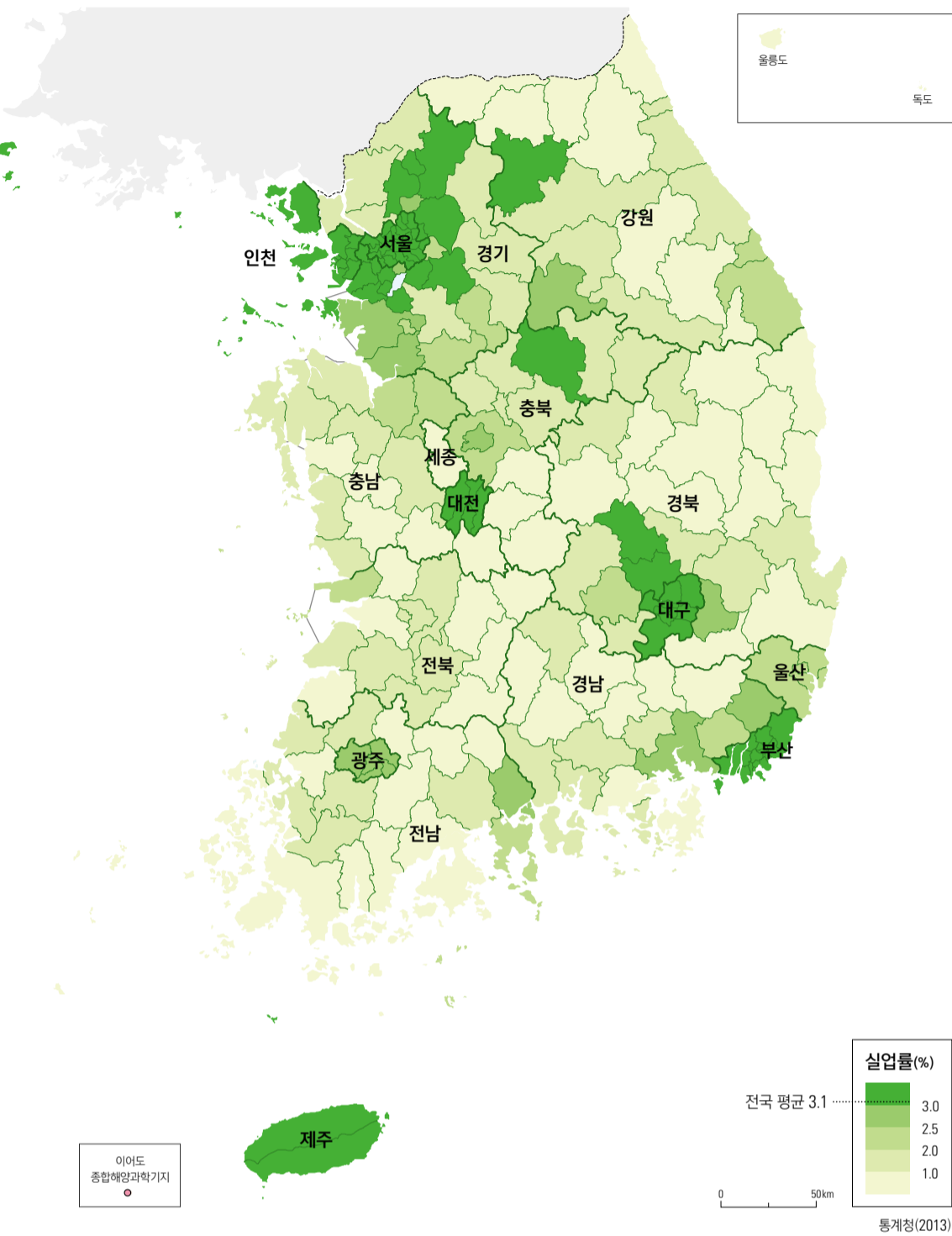
2013년 현재 한국의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약 4,210만 명이다. 이 중 육아, 가사, 교육, 국방, 사회적 여건 등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한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23만여 명이며, 현재 취업 혹은 구직 상태에 있는 경제 활동 인구는 2,587만여 명이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61.5%로 2000년 이후로 60 - 62%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대도시권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용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13년 전국 취업자는 2,507만 명(96.9%)이고 실업자는 80만 명(3.1%)이다.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56.7%까지 떨어졌다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2013년 현재 59.5%이다.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인 실업률 또한 경제 위기 때 6.3%까지 올랐다가 떨어져 2013년 현재 2.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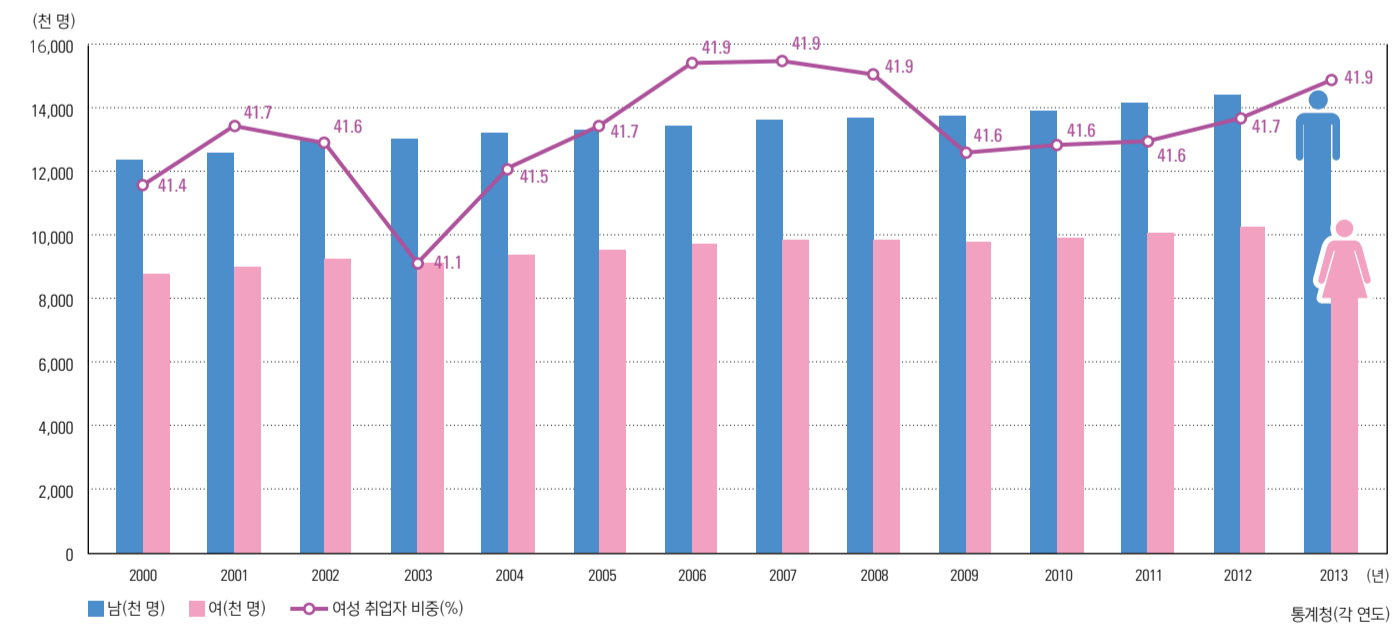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취업자 비중(2013년)



실업률(2013년)



성별 취업자 추이



실업률은 대도시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도시권의 일자리 수요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대도시권은 경기도 따라 실업률의 변화폭 또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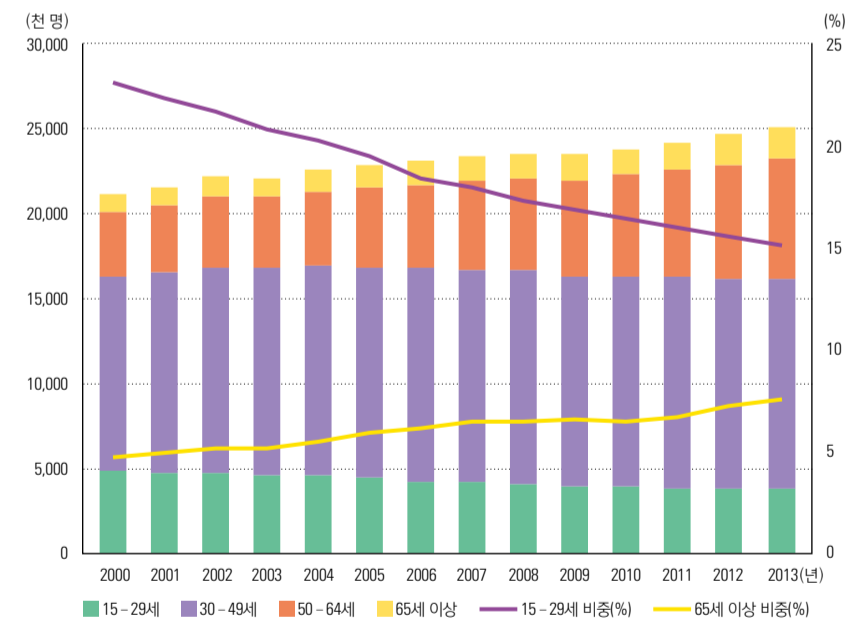
취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취업자 1,457만 명과 여성 취업자 1,049만 명으로 구성된다. 여성의 취업률은 과거에 비해 높아져 2000년 이후 줄곧 41%를 유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서비스 경제화가 진행된 대도시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울산광역시와 같이 제조업 비

중이 높은 시·도에서는 남성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더불어 취업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연령별로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2013년 현재 장년 취업자(30 - 49세) 49.4%, 청년 취업자(15 - 29세) 15.1%, 노년 취업자(65세 이상) 7.6%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에 비해 청장년 취업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중노년 취업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정보의 흐름이 원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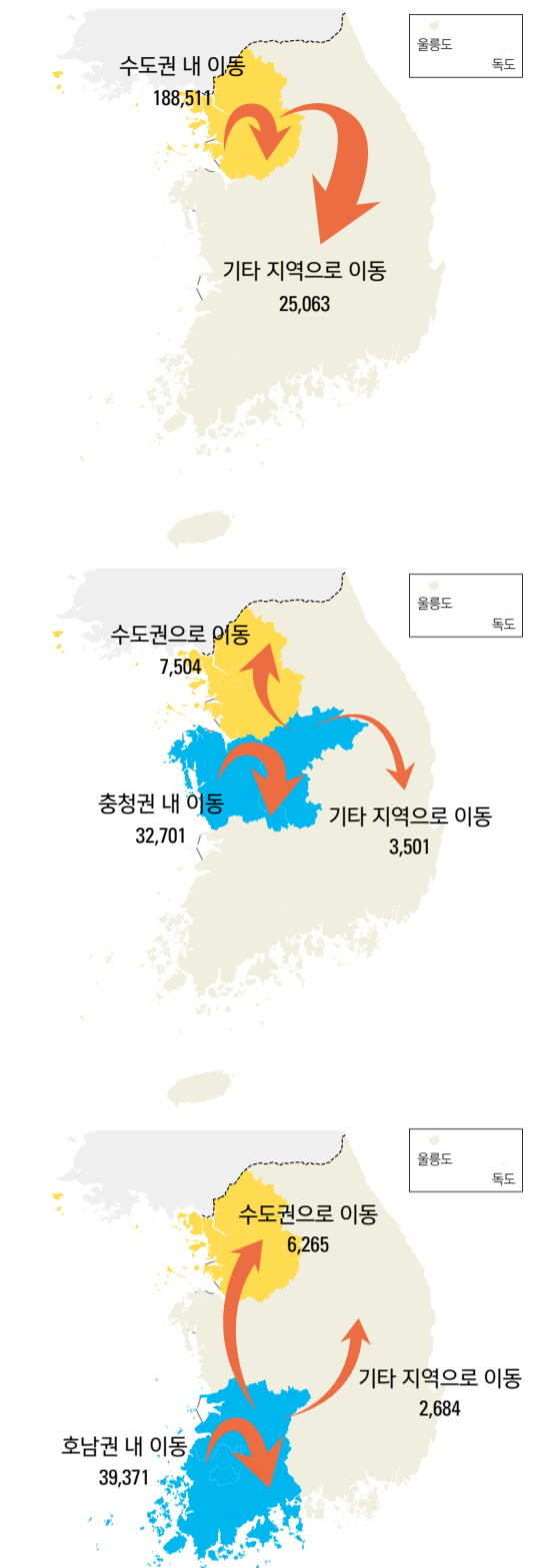
해지고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원동력을 삼는 지식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과 더불어 고학력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대졸 학력자가 지역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곳은 주요 대도시에 한정되었으나 2013년 현재 전국에서 대졸 학력자는 수적으로 고졸 학력자를 앞질렀다. 하지만 고학력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연령별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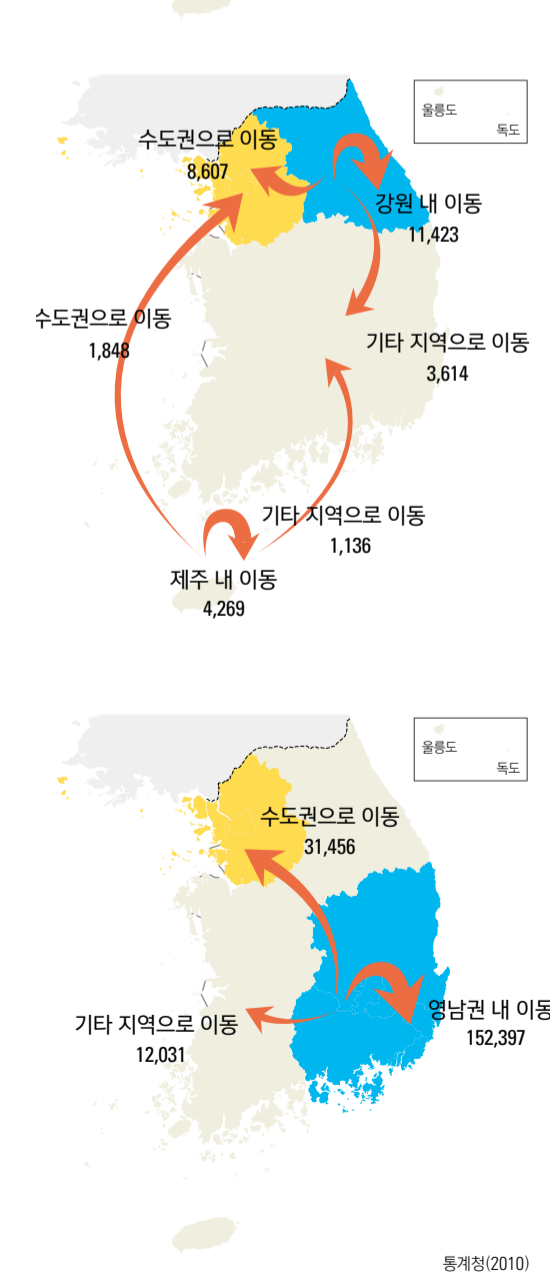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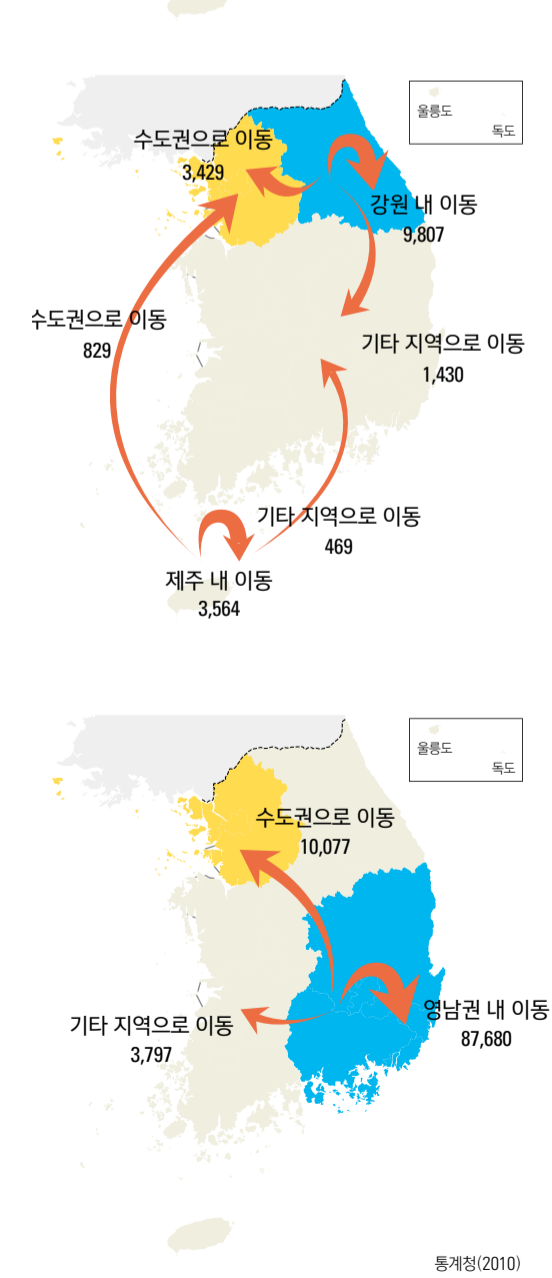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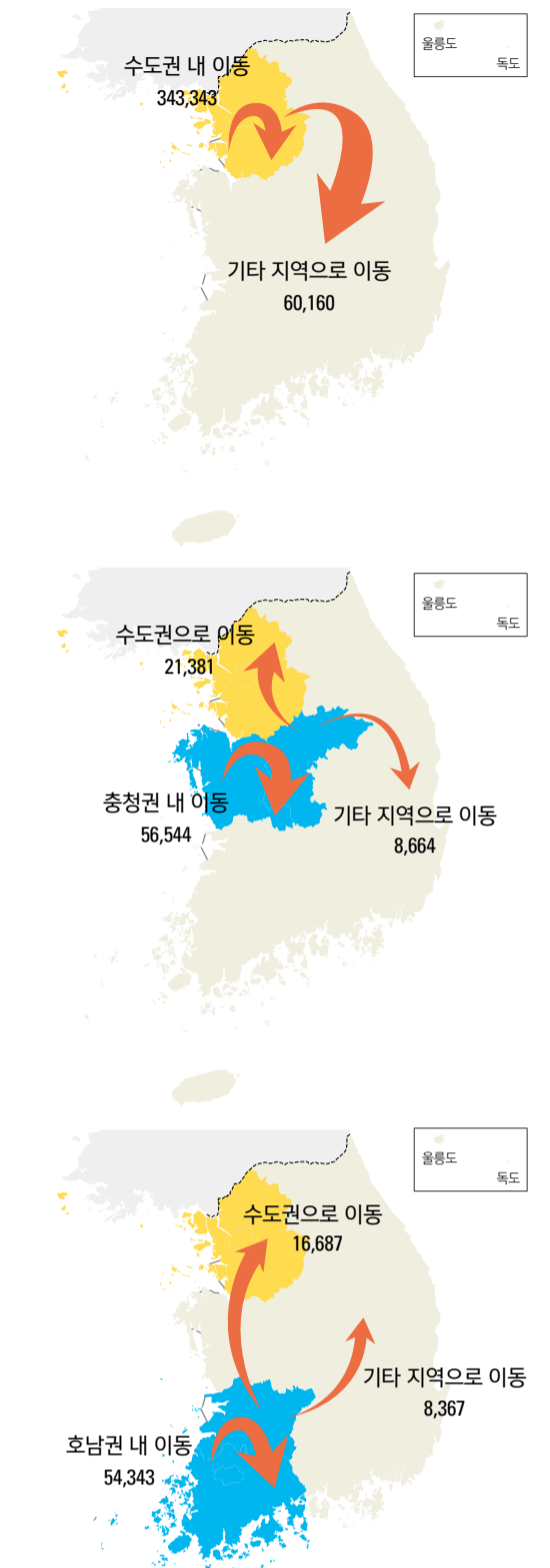


다. 이 과정은 대학 진학(15 - 19세)과 대학 졸업 직후(25 - 29세)의 이주 현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25 - 29세 연령 집단 지역 간 이동 양상을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비율이 높고 주목적지가 수도권임을 알 수 있다. 15 - 19세 연령 집단의 경우도 25 - 29세 연령 집단에 비해 역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전히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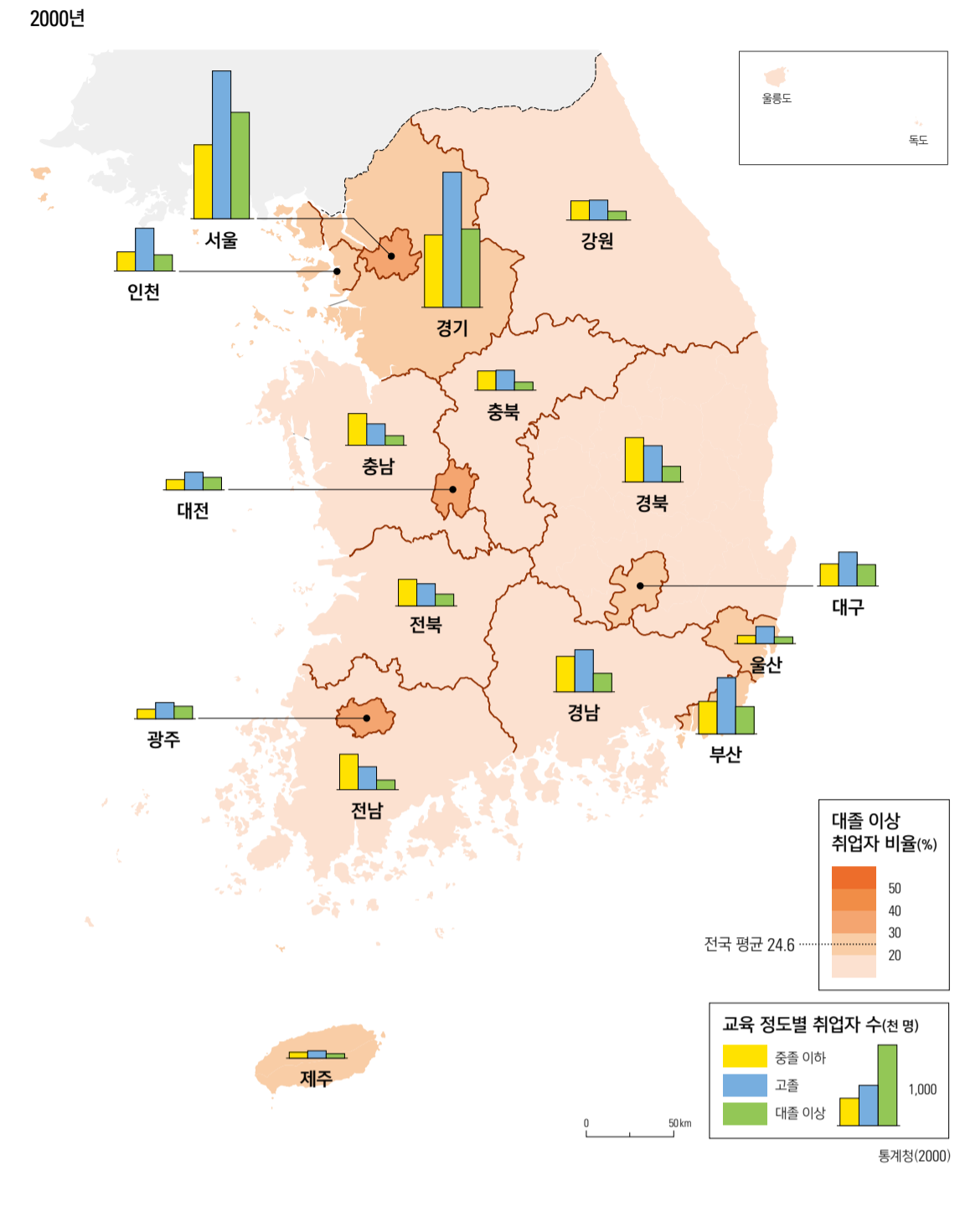
15 - 19세 권역별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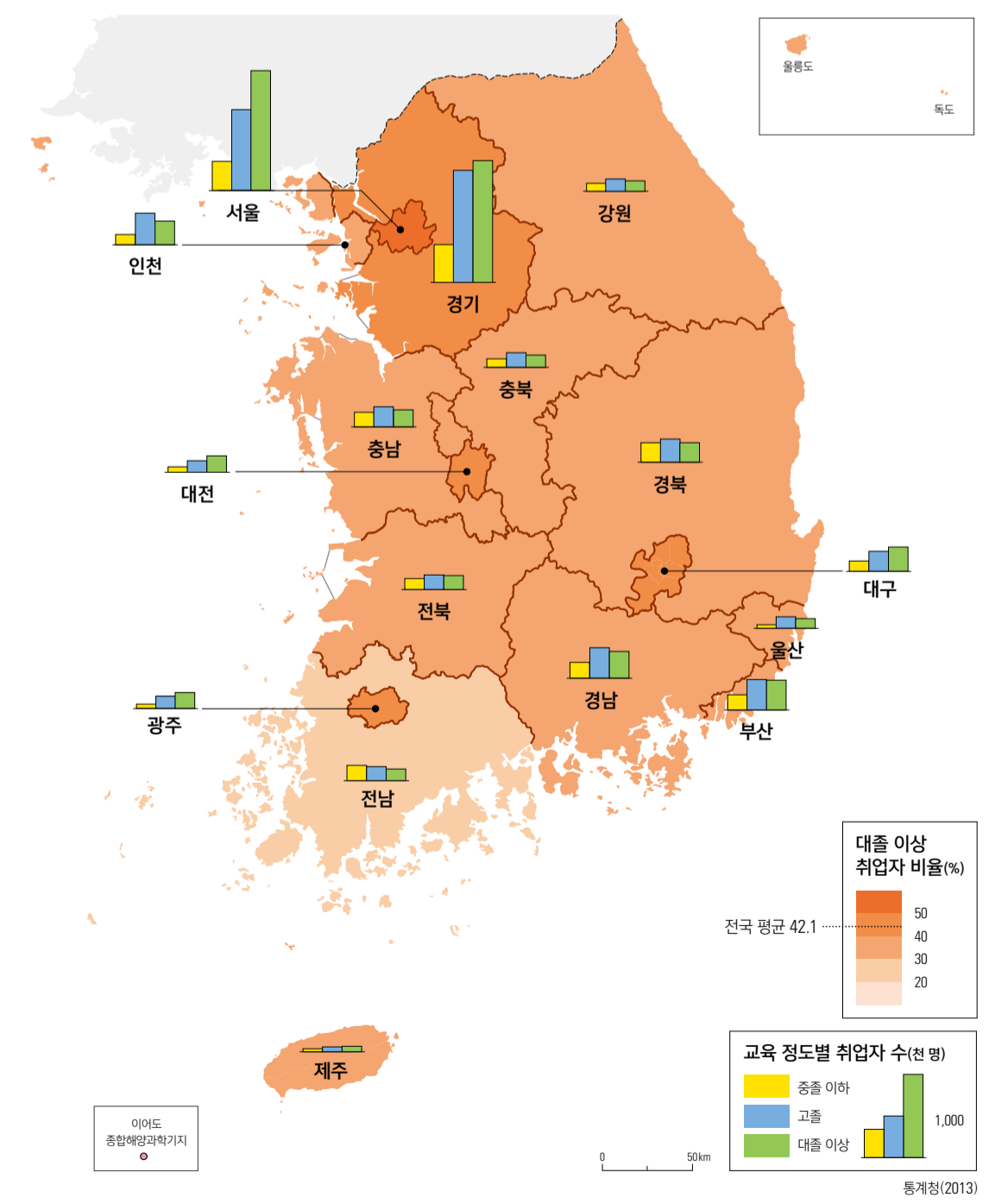
25 - 29세 권역별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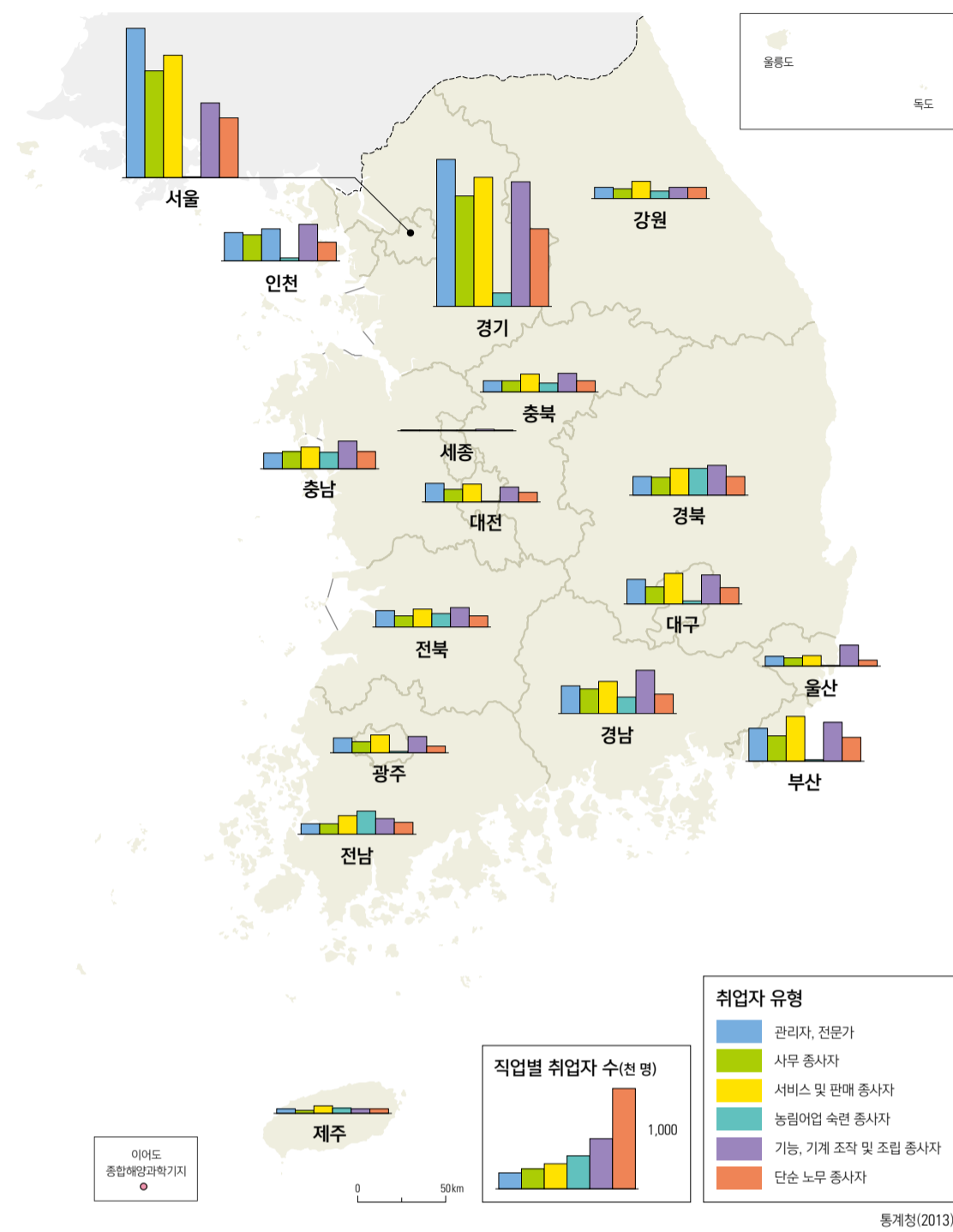
교육 정도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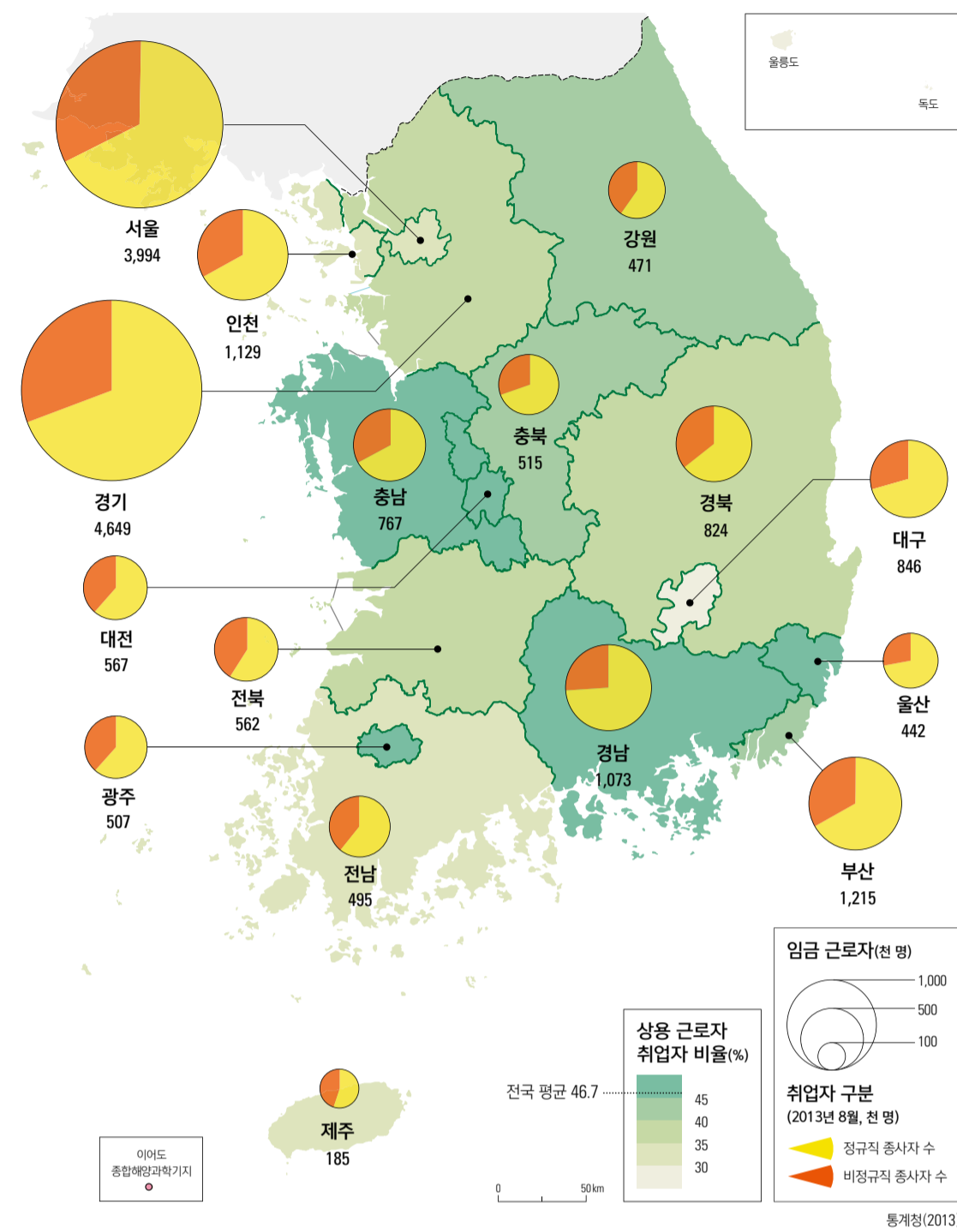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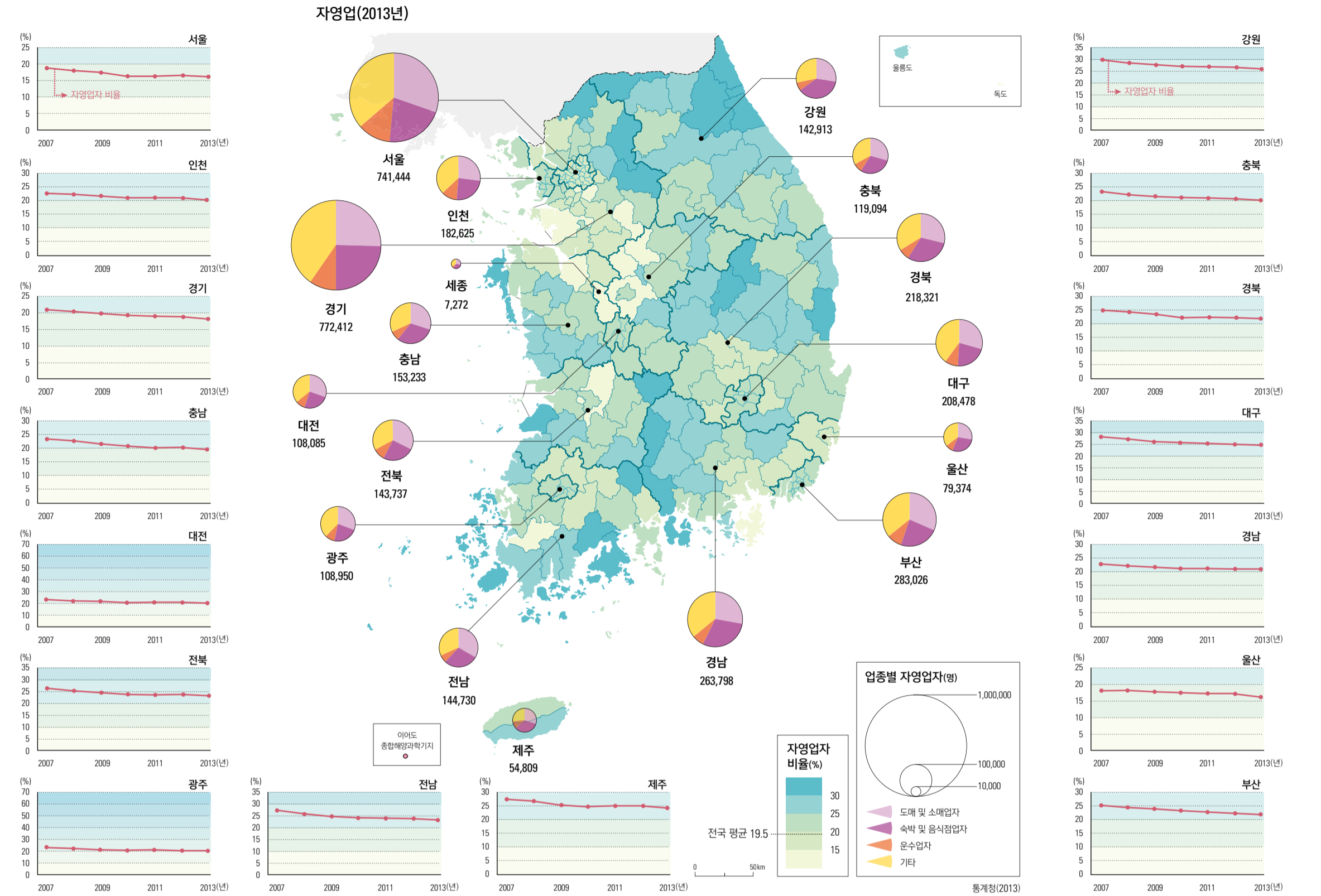
직업별 취업자(2013년)



중상상 지위별 취업자(2013년)



자영업



취업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모든 시·도에서 관리자·전문가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대도시에서는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수가 감소하여 탈공업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일자리 간 질적 격차가 점차 벌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취업자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임금을 얻는 임금 근로자와 스스로 자기를 고용하거나 고용주의 가족으로 무급으로 일하는 비임금 근로자로 나뉜다. 그리고 임금 노동자는 계약

기간의 장단에 따라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로 나뉜다. 상용 근로자는 매일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반해 임시 근로자는 짧은 기간의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일시적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된다. 일용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매일 재계약을 해야 하므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통계청 월별 고용 동향에서는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 근로자, 1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임시 근로자, 1개월 미만이면 일용 근로자로 분류한다. 반면, 노동부의 노동 통계 조사에서는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고용되면 상용 근로자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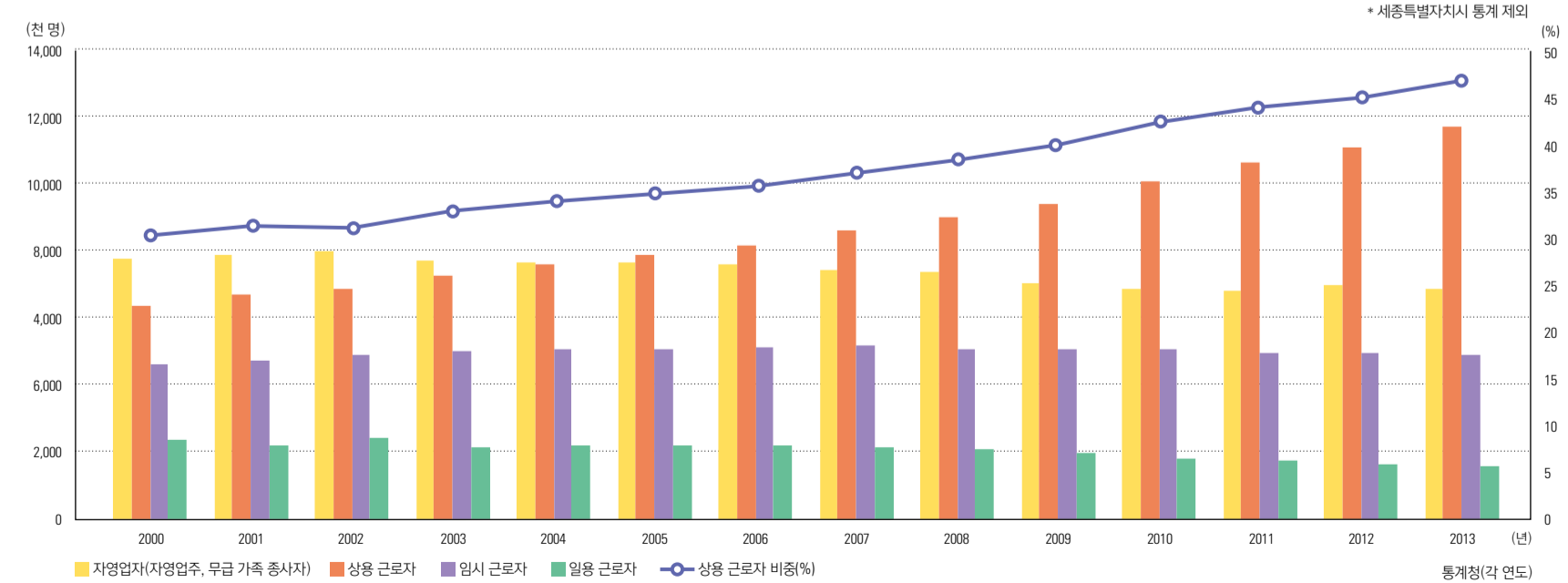
임금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도 나뉘는데, 정규직은 고용 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회사의 정년 연령까지 고용을 약속한 근로자를 말한다. 주로 전일제로 근무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한다.

반면 계약 기간이 명시된 한시적 근로자, 근로 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 파견 및 용역 등의 비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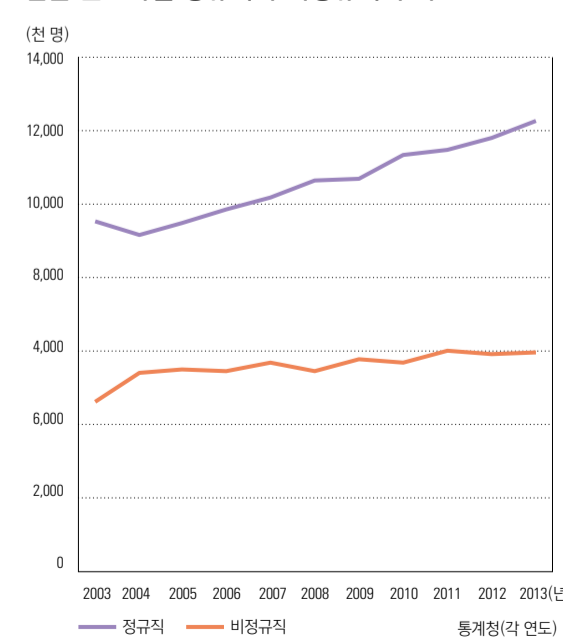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2000년 이후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임시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여 전체적인 고용 안정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규직의 비중은 2013년 임금 노동자의 2/3 수준으로 높지 않다. 2003년 전에도 그 수준이었으나 노동 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낮아졌다가 최근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따라 회복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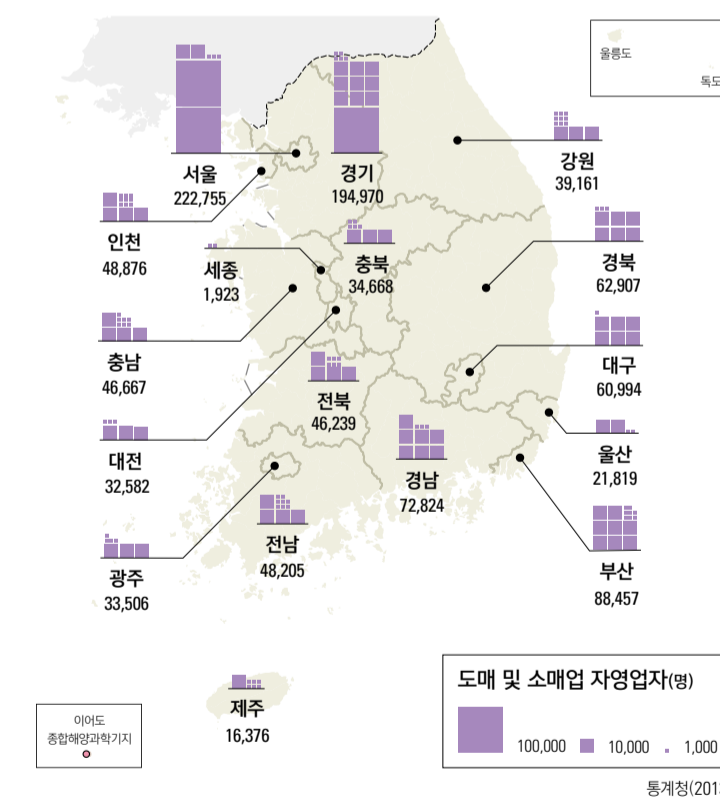
중상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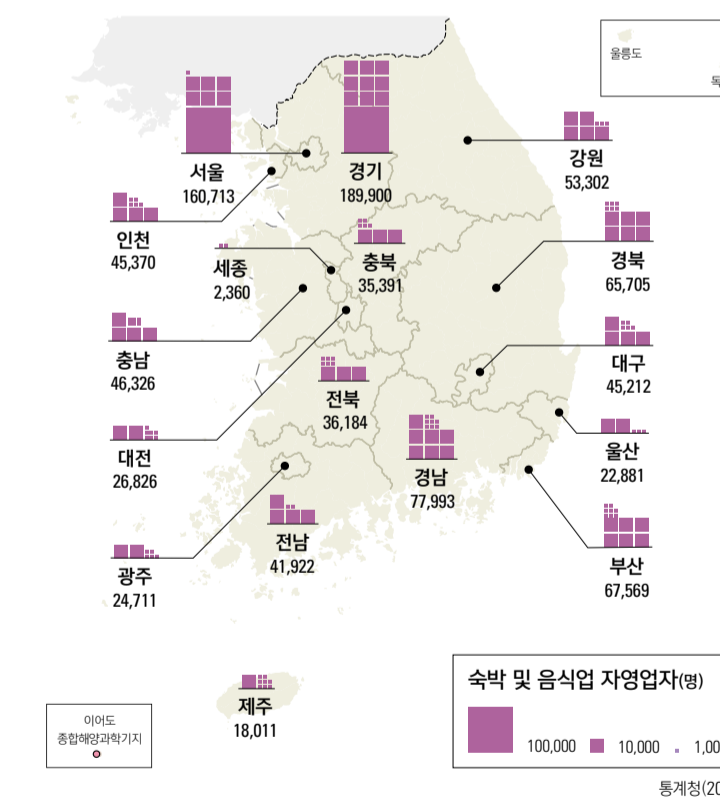
임금 근로자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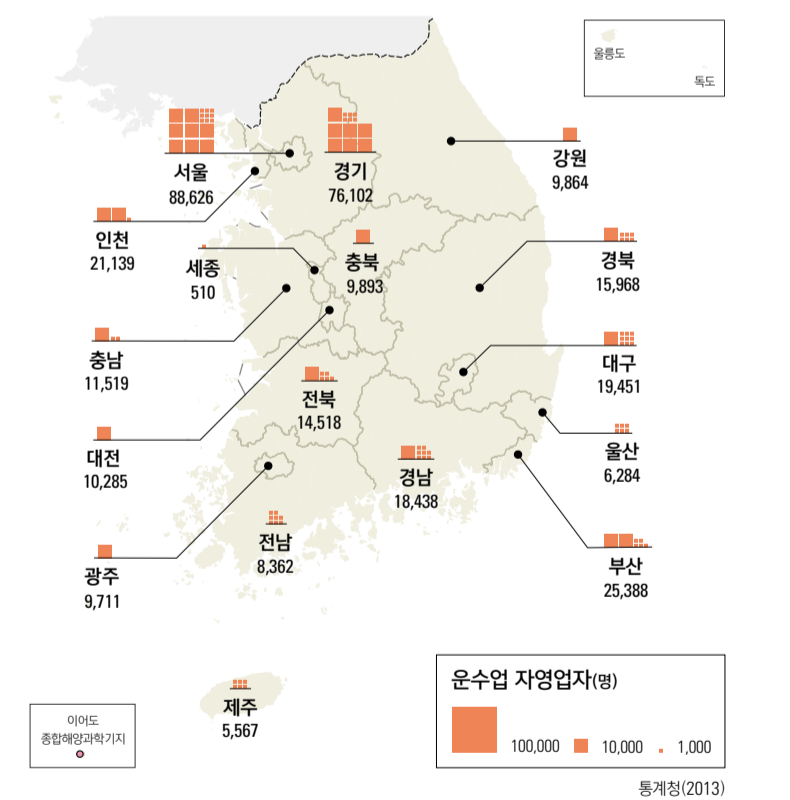
도매 및 소매업 자영업자(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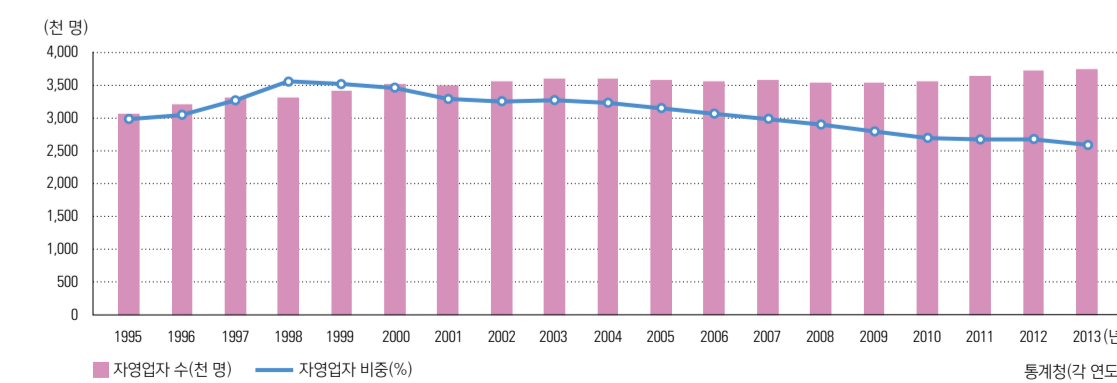
숙박 및 음식점업 자영업자(2013년)



운수업 자영업자(2013년)



자영업자 추이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높은 자영업 비중은 기업가주의가 강하거나 장려되기 때문일 수 있으나 사실 대부분의 자영업이 영세하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한 자영업자의 수는 2002년 약 800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

소하고 있고 2004년 이후 상용 근로자의 수보다 적어짐에 따라 자영업 과잉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 저차 서비스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장시간 노동, 높은 폐업률 등의 문제를 갖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